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2017. 2. 8

## 금 융 위 원 회

※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1 인사 말씀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서민금융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부천 통합지원센터(‘14.11월)를 시작으로 지난해 말까지  
전국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였고,  
이로써 서민금융 네트워크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서 34번째이자,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학업과 생업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청년·대학생 여러분,  
대학 및 중소기업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일선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유관기관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2 '청년 집중지원센터' 개소의 의미

오늘 개소하는 강남 통합지원센터는,  
청년·대학생 여러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를 겸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수상이었던 벤저민 디즈레일리(1804~1881)는,  
"청년은 미래를 책임지는 사람들"라며  
(The Youth of a Nation are the trustees of posterity.)  
한 국가의 미래와 관련하여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인 청년·대학생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대학생 여러분이 처한 현실은  
어느 때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높은 등록금 등 교육비 부담\*,  
경기회복 지연으로 인해 지속되는 취업·구직난\*\* 등으로  
청년·대학생의 금융부담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 1인당 교육비 연간 1.5~2천만원 소요(입학에서 졸업까지 약 8,510만원)

\*\* 청년 실업률: ('07) 7.2% → ('09) 8.1% → ('14) 9.0% → ('16) 9.8% (통계청)

지난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중  
20대 청년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도  
여러분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 결과입니다.

\* 29세 이하 개인워크아웃 신청자 : ('15년) 8,023명 → ('16년) 9,119명 (13.7%↑)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올해 서민금융 정책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청년·대학생 금융 지원입니다.

청년·대학생 여러분이 자금 걱정 없이  
학업·취업에 전념하고,  
원활하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시기별·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재학기간 중 교육비·생활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 등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늘어나는 재학·구직기간을 감안하여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거치기간·상환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

'청년 집중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취업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취업 이후 원활한 사회적응까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 3 2017년 서민금융 정책방향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정부는 정책 서민자금의 공급 여력을  
지난해 5.7조원에서  
올해 7조원\*까지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미소금융) 0.5조원 → 0.6조원, (햇살론) 2.5조원 → 3.0조원  
(새희망홀씨) 2.5조원 → 3.0조원, (바꿔드림론) 0.2조원 → 0.4조원

확대 공급되는 서민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만큼 충분히 전달되도록,  
‘미소금융’의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햇살론’·‘새희망홀씨’ 등도  
지원대상 범위\*\*와  
지원한도를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 미소금융 지원기준 :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6등급 이하

\*\* 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지원기준: 연소득 3→3.5천만원 / 4→4.5천만원(6등급 이하)

\*\*\* 지원한도 확대 : (햇살론) 1.5 → 2천만원 / (새희망홀씨) 2.5 → 3천만원

또한, 그동안 정책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 저신용 취약계층 생계자금(미소) 신설 : 1,200만원 한도, 금리 3~4.5%

서민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전달되려면  
전달체계인 서민금융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해 33개까지 확대한 통합지원센터를  
올해에는 40개 이상으로 확대 설치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1시간 정도면  
서민금융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올해에는  
통합지원센터의 양적(量的)인 확대뿐 아니라,  
질적(質的)인 측면에서의  
내실화 노력도 기울이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서민 분들이  
통합지원센터에 한 번만 방문하시면,  
자금 및 신용회복 지원, 고용·복지 연계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맞춤형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센터의 경우는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개별 통합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용을 통해서  
전국망을 갖춘 서민금융 네트워크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소하는 강남 통합지원센터는  
금융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대학생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쉽고 편안하게 들어서  
다양한 금융상담 및 지원을 받기에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대한민국 청년 금융지원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하며,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를 함께 만들었습니다.

오늘 모이신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로 바쁜 청년·대학생 분들이  
이런 유용한 곳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부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인식 조사’(15.12월, 청년위원회)’ 결과,  
청년층의 대부분(82.5%)이 “정부기관의 청년지원 정책에 대해 잘 몰랐다”고 답변

하늘을 나는 비행기는  
이륙부터 순항고도\*에 이르기까지가  
가장 연료가 많이 든다고 합니다.

\* 안전한 비행을 위해 유지해야 하는 적절한 해발고도

청년·대학생 여러분도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자립할 때까지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연료가 필요한 시기일 것입니다.

그 연료 중 다만 일부분이라도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는, 정부의 지원 노력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간 청년·대학생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여러분께서 실제로 경험하고 느낀 점들을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서민금융상품 이용 경험담, 개선 요구사항,  
취업상담시의 애로사항,  
중소기업 취업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탄없이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뜻을 품고 비상하는  
여러분의 **희망찬 미래**를  
저희가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며,

강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청년·대학생 집중지원센터가  
이 지역 서민금융의 거점이자  
대표적인 **청년 서민금융의 거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